

담당교수 : 배민재

청일전쟁과 갑오개혁

19세기 후반의 청과 일본, 그리고 조선

- ▶ 19세기 후반 청-일본 간 이슈 : 류큐(琉球), 타이완, 조선
- ▶ 1871년 청일수호조규 & 통상장정 조인
- ▶ 1874년 일본의 타이완 침공
- ▶ 1875년 5월 류큐에 일본군 주둔
- ▶ 청, 조선-각국 간의 조약 체결 주선 → 일본 견제
- ▶ 임오군란을 계기로 조선 내정간섭, 청군 주둔
- ▶ 일본 - 제물포조약을 근거로 조선 수도에 병력 주둔 권한 획득
- ▶ 갑신정변 이후, 청일 양국은 조선에서 변란 등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파병이 가능하다는 합의에 도달, 조약 체결

청일전쟁의 계기: 동학농민운동(1894)

- ▶ 농민층의 동요
- ▶ - 개항 이후 청과 일본의 경제 침탈 → 빈농층과 소상인의 몰락
- ▶ 동학의 확산
- ▶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
 - 고부 농민 봉기: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 → 전봉준 등의 관아 습격
 - 1차 봉기 : 보국안민, 제폭구민 → 청에 지원군 요청 → 일본군 파병
 - 전주화약 : 청일 양군 철수 요구, 폐정개혁안
 - 집강소 설치 & 정부 교정청 설치 → 일본군 철수 거부, 경복궁 점령 → 청일전쟁 발발
 - 2차 봉기: 척왜(斥倭), 우금치 전투 패배

청일전쟁의 발발과 전개

- ▶ 동학농민군 봉기, 청국에 파병 요청
- ▶ 일본군의 조선 출병: 對淸전쟁을 도발하고자
- ▶ 농민군 진압 후, 청일 양국군 공동 철수 논의
- ▶ 일본, 철병 대신 조선의 내정을 공동으로 개혁하자는 제안
- ▶ 청의 거절로 일본이 단독으로 내정개혁안 강행, 경복궁 침공, 조선 주둔 청군 공격, 친일정권 수립
- ▶ 청일전쟁 발발
- ▶ 일본군의 빠른 진군과 공략
 - 1894년 9월 평양에서 전투 시작, 육군 북상
 - 1894년 11월 제2군 요동반도 상륙
 - 1895년 2월 블라디보스토크의 북양함 기지 공략

청일전쟁의 결과: 시모노세키 조약

- ▶ 첫째,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무결한 독립자주국임을 확인한다. 따라서 이 독립 자주를 손상시키는 조선국의 청국에 대한 貢獻·典禮 등은 장래 완전히 이를 폐지한다.
- ▶ 둘째, 청국은 요동반도·臺灣·澎湖열도 등을 일본에 할양한다.
- ▶ 셋째, 청국은 戰費배상금으로 庫平銀 2억 냥(약 3억 엔)을 지불한다.
- ▶ 넷째, 청국은 일본에게 구미 열강이 청국에서 향유하는 것과 동등한 통상 상의 특권을 부여함을 승인한다.
 - 조선에 대한 우월한 정치·군사·경제적 지배권 장악
- ▶ 삼국간섭으로 좌절, 일본은 대만을 식민지로 확보

갑오개혁 기간

- ▶ 제1차 개혁기간(1894년 7월 27일~12월 17일)
 - 군국기무처의 핵심인물: 김홍집·유길준 등
- ▶ 제2차 개혁기간(1894년 12월 17일~1895년 7월 6일)
 - 김홍집&박영효 내각
 - 조선의 실질적 보호국화
 - 일본인 고문관, 차관정치
- ▶ 제3차 개혁기간(1895년 7월 7일~1896년 2월 11일)
 - 친일내각, 단발령 공포
- ▶ 고종의 아관파천으로 중단

갑오개혁의 내용

- ▶ 종주국으로서 청의 특권 폐지
- ▶ 전통적인 절대군주제적 통치 제도를 내각 중심의 입헌군주제로
- ▶ 재정의 효율적인 확충·관리, 근대적인 상공업 육성하고자
- ▶ 근대적 常備軍과 警察제도를 확립하고자
- ▶ 근대식 학교 제도 수립
- ▶ 전통적 신분제 질서 혁파
- ▶ 사법권의 독립, 재판 제도 수립